

[Press Release] 총 9쪽

## 《우리》



- 2025년 10월 15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3주 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윤정민 개인전
- 가족과의 일상, 관계를 탐구한 작품들이 중심이 된다. 윤정민은 자신의 기억과 경험, 그리고 그로부터 형성된 상상력을 통해 작가는 가족 구성원들에서부터, 크게는 사회적 관계를 지칭하는 ‘우리’를 표현한다.
- 드로잉과 조각을 활용한 작품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공존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재조명한다.
- 전시 공간 1층에는 드로잉 4점과 조각 4점이, 2층 전시 공간에는 회화 6점, 드로잉 1점, 조각 12점이 전시되어있으며, 야외 정원에도 조각 4점을 볼 수 있다.



○ 전시 개요

전시 제목: 《우리》

참여작가: 윤정민

일 정: 2025년 10월 15일(수) - 11월 8일(토)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Contemporary)

(문의: 02-395-8135)

개관 시간: 화-토, 11 a.m. - 6 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 사이트: [www.a-lounge.kr](http://www.a-lounge.kr)

\*Press Inquiries: 김다혜 책임 디렉터 ([hye@a-lounge.kr](mailto:hye@a-lounge.kr), 02-395-8135)

## ○ 참여 작가 주요 약력 및 간단한 전시 소개

윤정민 (b.1991)

윤정민 (b. 1991)은 주로 조각과 드로잉을 통해 일상적 경험과 감정을 형상화한다. 그의 작품은 때로는 섬세하고, 때로는 강렬한 형태로 인간의 내면을 드러낸다. 주로 사람의 얼굴, 몸, 그리고 그 안에 얽힌 감정의 움직임을 주제로 작업한다. 그의 작품은 여러 면으로 분할되어 있는 철 조각들이 모여 드로잉과 같은 하나의 조각 작품이 되는데, 그의 작품 속 인물들 역시 서로에게 기대거나 겹쳐있다. 작가는 가족 구성원들과, 크게는 사회 안에서의 관계와 공존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그 안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과 관계를 탐구한다.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치유허브, 서울(2019)을 비롯하여 아터테인, 서울(2023); 새탕라움, 제주(2021); 소금박물관, 신안(2021), 고양아람누리 갤러리누리, 고양(2020)에서 개인전을, «역어. 보아», 고양시립아람미술관, 고양(2025); «신선한 조각을 호흡하시오», 한가람미술관, 서울(2024); «공원, 심, 사람들», 소마미술관, 서울(2024); «점 안의 우주»,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2023); «토탈 서포트», 토탈미술관, 서울(2023) 등에서 단체전을 가졌다. 2026년 OCI 영 크리에이티브에 선정되었으며,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과 아라리오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 ○ 전시 내용

윤정민의 개인전 《우리》가 오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3주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가족과의 일상, 관계를 탐구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드로잉과 조각 작품으로 전시를 구성한다. 윤정민은 자신의 기억과 경험, 그리고 그로부터 형성된 상상력을 통해 작가는 가족 구성원들에서부터, 크게는 사회적 관계를 지칭하는 ‘우리’를 표현한다. 드로잉과 조각을 활용한 작품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공존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재조명한다. 작품 속 가족의 모습은 단순한 일상의 기록을 넘어, 그 속에 숨겨진 감각적 층위를 드러내며 관객을 그 세계로 초대한다. 윤정민은 개인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전시를 구성하면서도, 그 안에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과 관계를 담아낸다.

○ 전시 서문

**AFTERIMAGE**

1. 평상의 순간은 어떤 계기로써 비로소 사건이 된다. 이들 사건은 따로, 또 함께 이합하고 집산하며 일련의 사유적 군집을 형성해 낸다. 해당 무리를 이루는 집단의 실재는 자체로 하나의 ‘이미지(image)’이자 또는 개별의 ‘상(像)’으로 부유한다. 거칠고 견고하면서도, 한편 뜨겁고 유연한 속성을 안팎에 품고서, 단조(鍛造)된 형상의 구조는 그렇게 무언가를 발화한다. 의미란 이러한 기제로 스스로의 맥락을 활성화하는 것일 테다. 검고 무거운 한 줄의 획은 공간을 가로질러 시간을 수놓는다. 작가의 기억은 바로 그곳에서 결정되기를 택한다. 스냅샷(snapshot)의 경우와 같이 연출되지 않은, 따라서 자연스럽게 할 포착의 상태는 복제의 경로를 거쳐 이처럼 남겨졌다. 작업의 예술적 틀을 매개로 과거는 영원한 현재로 승화한다. 윤정민의 드로잉(drawing)은 말 그대로 행위이자 수행이다. 사진의 형식으로 돌이켜진 매일은 곧 다시금 구성된 장면으로 다시 선다. 특수과 일반의 교차 성립을 자명할 가능성은 아마도 그곳에 있었을 수 있겠다. 그로부터 그의 조각이 더는 범상한 무엇일 수 없음은 한층 확연해진다.
2. 개인의 상일(常日)과 연루된 주변적 일화들과의 조우는, 본디 그것의 실체가 그러하듯, 찰나로서의 운명과 제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모두에게 상기하는 효과를 낸다. ‘기록(record)’의 취지는 흔적의 저장으로, 기호적 차원에서 일회적 경험을 보전하는 역할을 자기 완결의 근원으로 한다. 존재의 정조는 추상의 형상을 덮어쓴 채 각자의 일에 열중한다. 그것은 정지된 하나의 풍경이지만, 그 서사(narrative)의 추출 방향에 따라 창출된 목적성을 달리한다. 이상의 절차로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마친다. 가족의 구성원들과 함께 보낸 일상은 윤정민에게 훗날 직조된 자료로서 또한 축적된다. 이 정보는 다시금 작가의 작업을 위한 소재로서 특정 기준에 따른 선별, 나아가 재구성의 과정을 지난다. 이때 가미된 상상의 정도는 평소 의식의 상례를 넘어선 층위로 관람의 주체를 (역시나) 자연스럽게 진입도록 하는데, 부인 그리고 아이와 함께 꾸린 세 명의 가족은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이들을 합류케 하는 미적 매체로서의 필연한 복선(伏線)이자, 혹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내면을 감각의 단계에서 영사해 내는 무관한 맥거핀(MacGuffin)으로서 이중적 성격을 외연한다. 작가의 조각은 이처럼 관계로부터의 교감적 표상으로 남겨진 발화로, 때로는 직관스러운 태도 그 자체를, 때로는 문학적인 은유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로써 윤정민이 가족이라는 규모(scale)의 구성원이자 사회라는 세계의 당사적 위상을 동시대의 맥락에서 규명하려는 지점은 분명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3. ‘우리’라는 이름으로 이룩한 공동체적 합의의 집체란 과연 신비롭다. 이는 계약의 형식을 앞세운 일종의 믿음 체계로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그 질서의 측면에서 인간이라는 국면으로 전환한다. 작가의 드로잉 조각들이 그러한 상호성을 양식화한다면, 문지르듯 그가 그린 평면 채색화들은 심연의 영역을 투사한 감광면의 그것과 유비하는 무엇과도 같다. 인물들의 표정은 무의식적임으로써 크게 자유롭다. 원초적인 시공에서 서로는 서로의 지지체가 될 것을 기꺼이 자청한다. 거창함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랑의 크기는 무한할 것이므로, 안심스럽다. 그리하여 사소한 감정에의 휘둘림에 더는 연연치 않은 채로,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삶은 본래 그런 관계의 실상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여정의 순환인 것은 아닐까. 윤정민의 전시 《우리》(2025)는 바로 그러한 상호 관계의 근원을 되묻는 장이자, ‘공존’이라는 존재의 근원을 다시금 감각계 하는 깊은 성찰의 주요한 잔상(afterimage)이 된다.

장진택(독립 큐레이터)

○ 대표 작품



후추야 뭐해 *What are you doing, Hoochoo?*

2025

Steel

84 × 55 × 37 cm



겨울 *Winter*

2023

Graphite powder and oil stick on panel

117 × 91 cm



신생아 *Newborn*

2025

Steel and Hanji

60 × 35 × 25 cm



감자 *Potato*

2025

Graphite powder and oil pastel on paper

42 × 29.7 cm

# A-L

○ 전시 전경



# A-L



# A-L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s, Courtesy of A-Lounge Contemporary, Seoul